



미 증시, 지표 부진 속 차익실현물량 출회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31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지수 고점 부담감이 누적된 가운데, 8 월 소비심리지표 급락 등 주요 경제지표 부진, 9 월 3 일(금) 8 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시장참여자들의 차익실현압력을 확대시킴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0.11%, S&P500 -0.13%, 나스닥 -0.04%). 업종별로는 부동산(+0.6%), 경기소비재(+0.4%), 커뮤니케이션(+0.3%) 등이 강세, 에너지(-0.7%), 기술(-0.6%), 소재(-0.3%)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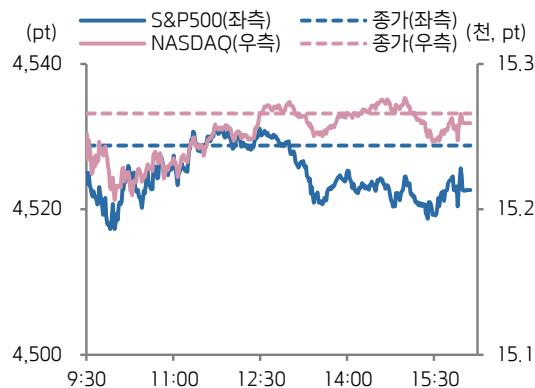
8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13.8 로 전월(125.1) 및 예상치(123.1)를 모두 하회하며, 올해 2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델타 변이 확산, 물가 상승 부담 등이 고용 포함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음을 시사. 8 월 시카고 제조업 PMI 는 66.8 로 전월(73.4) 및 예상치(69.4)를 모두 하회하면서 시카고 내 제조업황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

6 월 케이스-실러 20 대 대도시주택가격 지수는 19.1%(연율)로 전월(17.1%) 및 예상치(18.7%)를 모두 상회. 재고 부담, 저금리 환경 등으로 6 월 중 대부분 대도시들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됐음을 확인.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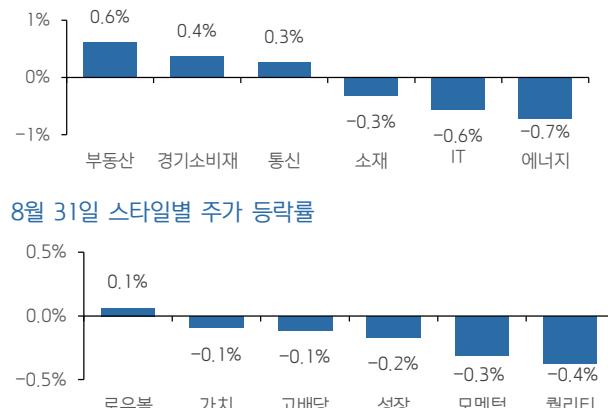
8 월 이후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됨에 따라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지표 부진이 연준의 향후 정책 정상화 속도를 지연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로서는 향후 발표예정인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지표가 쇼크 혹은 서프라이즈와 같이 양 극단 수준으로 발표되는 것보다는 시장 예상치 범위 내에서 발표되는 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예상이상으로 쇼크를 기록할 경우 경기 둔화가 이제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 9 월 FOMC 에서의 테이퍼링 공식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미국도 기업 실적 시즌이 종료 국면에 접어든 만큼, 당분간 경제지표 의존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S&P500&NASDAQ 일증 차트(8월 3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3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9.3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한국의 8월 수출 지표 호조 여부
2.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 완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 관련 피해업종들의 주가 반등 여부
3. 전거래일 대규모로 유입됐던 외국인 순매수 지속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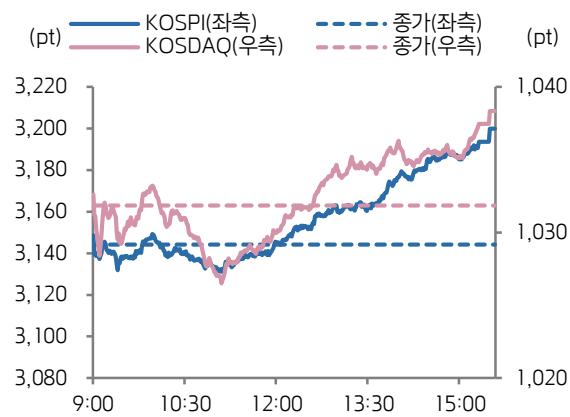
한국 증시 리뷰

31 일(화) 코스피는 장초반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부진,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그러나 이후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추가 부양 기대감, 원/달러 환율 급락, MSCI 리밸런싱 관련 외국인 패시브 수급 유입 등에 힘입어 대형주 위주로 급 반등세를 보이면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코스피 +1.7%, 코스닥 +0.6%).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7%), 은행(+2.0%), 제조(+2.0%) 등이 강세, 의료정밀(-1.9%), 종이목재(-1.1%), 섬유의복(-1.0%)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 조 1,713 억원 순매수, 기관과 개인이 각각 1,877 억원, 9,884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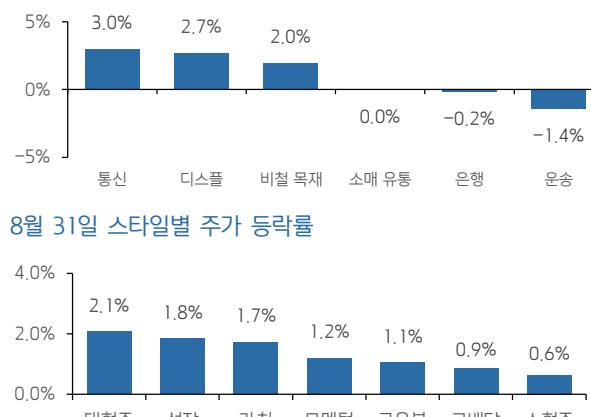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따른 단기 급등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장 시작 전 발표 예정인 한국의 8 월 수출(예상 +34.2%YoY)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일 대형주들의 주가흐름을 견조할 것으로 전망. 한편,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배경으로 MSCI 리밸런싱(8 월 중 한국 증시의 여타 증시 대비 상대적인 부진에 따른 MSCI 신흥국 증시 내 한국 증시 비중 정상화 수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산업 규제 완화 기대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 원/달러 환율 급락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달리 말해,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의 성격을 하나의 요인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시사. 그럼에도 잭슨홀 미팅 이후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을 감안 시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것이라는 기존 당사의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3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3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